

불교적 개혁사상으로 변혁 꿈꾼 선각자의 일기

불교로 읽는 古典

김옥균의 <갑신일록>



김경집
전국대학교수

어린 시절 일기를 썼다. 방학숙제인 탓에 강제로 썼던 적도 있었고, 칠들면서 자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쓴 적도 있다. 세상일이 바빠지고 하루를 정리하는 글을 쓰기가 어려워지면서 일기는 손에서 멀어졌다.

개인의 하루 일상을 정리한 일기,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가 썼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키만한 인물이 쓴 글이면 개인의 정리를 넘어 역사가 된다. 우리 역사에서 그런 일기가 제법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임진왜란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기록한 <난중일기>일 것이다.

근대에 집필된 일기 가운데 역사적 가치가 큰 것을 꼽는다면 김옥균의 <갑신일록(甲申日錄)>을 들 수 있다. 이것은 1884년 12월 4일 일어난 갑신정변에 대한 기록이다. 김옥균은 朴泳孝(박영효)·서광범(徐光範) 등과 우정국 낙성적 축하연을 계기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목적은 근대화에 뒤진 조선의 개혁이었다. 그러나 자체적 역량의 부족과 배후 지원을 약속했던 일제의 변심으로 정변은 3일 만에 끝나고 말았다. 그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국내에 남은 개화당 요인들과 가족들은 참형을 면치 못했다.

일본 망명 후 1년이 지난 1885년 후반 무렵 김옥균은 기억을 되살려 그날의 일을 기록하였다. 정변의 주역으로서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후세에 남기겠다는 생각이었다. 또한 지원을 약속한 일제의 배신에 대한 분노도 담겨 있었다. 이런 계기로 세상에 나온 것이 <갑신일록>이다.

일기문인 탓에 별다른 내용 없이 간단한 서문에 이어 본격적인 일기로 이루어져 있다. 한문으로 쓰인 내용은 1884년 10월 30일 일본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가 조선에 오자 그를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하고 정변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성을 탈출한 그 해 12월 6일까지 38일 동안의 혁명의 모의와 진행 그리고 실패의 과정을 적고 있다.

혁명의 실패와 망명, 해외에 머물면서 실의 빠진 개혁가는 무슨 생각으로 지난 일을 적어 갔을까?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거사한 탓에 실패로 인한 실망과 울분은 컸으리라.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던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선이 홀로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으니 심히 부끄럽다. 조선이 어느 때에 독립하여 서양의 여러 나라와 같은 대열에 서겠는가.”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 망명시절의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사진 왼쪽부터). 젊은 신진 세력에 의해 진행된 갑신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만에 끝났다. 이를 주도했던 김옥균은 일본 망명 후 당시 상황을 술회한 <갑신일록>을 저술한다. 불교에 심취했던 김옥균의 면모를 살피면 유교적 신분제를 넘어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근대 지식인의 면모를 알 수 있다. 특히 그 기저에는 불교가 있음이 유추된다.

3일 천하로 막 내린 '갑신정변'

조선 근대화를 위한 개혁 시도

불교에 심취했던 주도자 김옥균

유교 아닌 불교서 개혁사상 찾아

'개화당'에는 스님들 참여 이어져

士農工商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불교에 내재된 평등사상서 기인

김옥균과 갑신정변에 대한 역사분야의 연구는 많다. 대부분 조선의 개화를 염원한 젊은 정치가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을 변화시켜 민중의 삶이 나아질 수 있기를 염원한 김옥균의 삶과 갑신정변의 이면에는 불교사상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를 저술한 이능화(李能化)는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당 사람들에 대해 흰 옷을 입던 공자(孔子)로 육식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었으나 이들이 선도(禪道)를 듣고 지혜로운 생각을 내었다. 그리고 일본을 유람(遊覽)하여 당시 형제를 파악하고 혁신을 결의하였다. 갑신정변은 그 결과이다. 그들은 배운 불교의 이치대로 직접 세상의 이치에 응용하고자 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혁명 동지였던 박영효도 김옥균이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미가 나서 친하게 되었다고 술회한 것으로 보아 불교신앙이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옥균이 불교를 사상적 배경으로 삼아 정변을 일

으킨 것은 유교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평등함을 담고 있는 불교사상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 그런 개혁의 씨앗은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오래전 박규수(朴圭壽)와 유대치(劉大猷)를 만나면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1872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직을 시작한 그는 조선사회의 변화를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런 뜻을 가진 자들을 모아 '개화당(開化黨)'을 만들었다. 그들은 조선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각자인 박규수의 집에 모여 세계제도의 변화를 탐구하였다. 실학과 개화사상을 배우던 그들은 1877년 2월 박규수가 사망하자 그 집을 출입하던 오경석(吳慶錫)을 통해 유대치에게 소개되었다.

그들을 만난 유대치는 개화당을 지도하는데 정열을 쏟았다. 그들 가운데 김옥균의 비범함이 돋보였다.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의 사상과 인격 그리고 학문적 재능 등이 드러났다. 출중한 안목으로 장래 대사(大事)를 계획함에 합당한 인물로 눈여겨 두었다. 유대치는 역관(譯官)이었던 오경석을 통해 북경에서 가져온 세계 각국의 지리, 역사 및 기타 신간서적을 그에게 주면서 천하의 대세를 설명하면서 조선의 개조를 역설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학사들이 의례에는 뛰어나나 도(道)에는 부족함을 탄식하며 불교 연구를 권하였다. 그런 영향으로 불서(佛書)를 애독하게 된 그는 선(禪)을 수양의 근본으로 삼았다.

불교사상이 깊어질수록 김옥균의 눈에 유교의 부족함은 점점 많아졌다. 일찍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각 번(藩)의 상태를 살피고 유교가 영향을 준 번(滿)일수록 형식에 차 있고 만사가 궁색함에 빠져 있음을 보았다. 이런 현상은 유교의 형식적인 가르침

에서 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유교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수록 이를 치국의 이념으로 신봉하고 있던 양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들이 없어져야만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이 이르게 되었다.

조선 사회의 모순을 타개하고자 갑신정변을 일으킨 그는 불교의 평등사상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꿈꾸며 정강에 자신의 이념을 담았다. <갑신일록>에는 개화당의 이념을 알 수 있는 정강 14개 조항이 전제된다. 그것은 개화당의 정치개혁 지표였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정치적 개혁을 논의하였다. 국왕에게 상언(上言)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설명하였다. 특히 김옥균은 유대치의 지도를 받아 외국의 예를 따라 예산제도를 세우는 일, 행정기관의 책임분담을 마련하는 일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 조직을 고치는 것이라고 상언하였다.

개화당 요인들은 1884년 12월 5일 새벽 정권을 수립하여 인사행정을 단행하는 한편 6일 새벽까지 앞으로 실시해야 할 정강을 협의하였다. 이어 국왕의 전교로 발표하려던 순간 청군의 공격으로 정변이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었던 정강은 김옥균이 일본으로 망명해 <갑신일록>에 남김으로써 그 전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정강의 내용 가운데 개화당이 불교사상을 믿고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사실을 전해주는 내용이 있다. 그들은 불교의 평등사상을 배경으로 당시 봉건사회가 지니고 있던 신분제의 한계성을 탈피하기 위해 만민 평등권을 주장하였다. 이런 사상과 연관된 정강의 내용을 들자면 둘째, 문벌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는 것과 셋째, 조세 제도를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가난한 백성을 보

호하여 국가 재정을 늘린다는 내용이 될 수 있다.

개화당 사람들은 신분차별을 두지 않았다. 개화당의 인적 구성에서도 그런 특색이 나타난다. 조지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결코 신분적인 차이를 두지 않았다. 핵심인물에 중인(中人)출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중인만이 아니라 당시 낮은 신분으로 여기던 스님들도 함께 활동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신분 계급에 묶여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 평등관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그들의 생각이 정강의 문벌 철폐와 백성의 보호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조선사회를 어렵게 만든 양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조선의 기계문명이 앞서 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가치관은 동양에서 앞서 가던 우리 기계문명의 자취를 감추게 하였다. 또한 양반은 백성이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를 횡탈하고, 백성이 어려움을 다하여 조금이라도 쌓아놓으면 이를 약탈하는 존재로 여겼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길쌈을 하여 입고 먹으려고 하면 양반·관리가 그 이익을 빼앗아 백성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기는 자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농·공·상(農·商·工)의 모든 직업을 버리는 것보다도 못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결국 힘없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랑민이 되어 전국을 방랑하는 일이고, 그로 인하여 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양반을 없애 폐단의 근원을 치유해야만 국가가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김옥균은 그 병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문벌을 폐하고, 학교를 세워 사람의 지혜를 개발하고, 외국의 교양을 유입하여 국민을 교화할 것을 역설하였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외국의 종교란 그의 신앙으로 비추어 볼 때 불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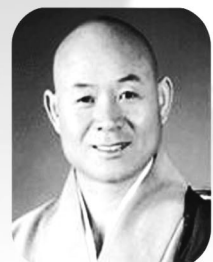
그는 유교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으로 불교 이외의 것은 없다고 간파하였다. 그리고 양반 중심의 정치체제를 타도하고 국민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던 것은 그의 불교적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치국이 실패한 조선 현실을 비판하고 있음을 볼 때 불교사상을 배경으로 국가를 관리하는 문제가 관심사였을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정변의 실패 후 일본에 망명해서 고종에게 보내는 상소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국민을 하루속히 개혁의 길로 이끌어 미묘한 작금의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의 독립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그리고 나라의 정치를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양반정치를 종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충언하였다.

이와 같은 불교를 바탕으로 한 김옥균의 개혁사상은 갑신정변의 실패라는 한계에 부딪쳐 실현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인간의 기본가치를 중요시 한 민권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사상은 이후 지속된 조선사회의 신분차별을 타파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불교에 있어서도 당면한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① 초6년 - 고3 재학
 - ②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①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석 사 과 정	3년	10명	· 입학신청서 1부
박 사 과 정	3년	10명	· 여권용사진 10매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② 학교소개

-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인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 시내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③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지스님 추천자

④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모집기간 : 2015년 7월 15일까지
수시전형

⑤ 문의처

-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 팩스 : 86-25-84028479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